

# 한국철도, 해외 입국 무증상자 위한 'KTX 전용칸' 운영 인천공항~광명역 전용버스...광명역부터 KTX 전용칸 뒤



KTX 광명역 입국인 전용 매표소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탑승

한국철도(코레일)가 해외입국자 전용 KTX 칸과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한 것이다. 운임은 이용자 부담으로 일반 승객과 같다.

인천공항에서 경기도 광명역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32회 전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번과 제1터미널 4번을 전용 승차장으로 운영하고, 광명역에는 열차 출발 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KTX(18칸)는 17호차와 18호차 두 칸, KTX-산천(8칸)은 8호차를 해외입국자 전용칸으로 운영한다.

일반 승객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칸과 일반 칸 사이의 칸(KTX 16호, 산천 7호)은 일반 이용객 승차를 제한하고 빈 객실로 운행한다. 이곳에는 철도사법경찰관이 승차해 전용칸 승객의 객실 이동을 제한한다.

KTX 전용칸 승차권은 광명역 전용 창구에서만 현장 발매하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

일반 고객과 거리 유지를 위해 광명역 인접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버스는 광명역에 도착 때마다 차량 실내외를 소독하고, 광명역은 입국자 동선 위주로 1일 6회 방역한다. KTX도 종착역 도착 후 전용칸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해외 입국자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일반 고객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당 열차와 버스는 집중적으로 소독해 방역에도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함께 극복하자 코로나19” 한국철도·대한적십자사 ‘맞손’

한국철도(코레일)는 지난 3월 31일 서울사옥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는 임직원이 모은 헌혈증 2천장을 기증하고 KTX를 통한 응급 혈액 수송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5월 8~9일 이틀간 12개 지역본부와 계열사 직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도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적 철도망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철도의 나눔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전국 네트워크의 한국철도와 함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오른쪽)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